

종교가진 주부 '행복지수 높다'

우리나라 주부들 종교를 갖고 있는 주부들이 그렇지 않은 주부들보다 기쁨에 대한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희대 가정대 강사 어은주씨(31)가 지난 3월 초·중·고생 자녀를 둔 서울지역 주부 28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요인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82명의 주부 가운데 무종교인이 75명 종교인이 207명으로 집계됐으며, 신생활을 하는 주부일수록 결혼생활 만족도 내지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의사소

어은주씨 박사논문 '도시가족의 건강성...'

통 등에 대한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부의 경우, 구체적인 종교분포는 전체 73.4%중 개신교가 34.8%, 불교가 22.0%, 천주교가 12.4%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경

신행활동 정서안정·삶의 질 향상에 기여

우 무종교가 35.1%, 개신교가 29.4%, 불교가 20.9%, 천주교가 8.2%로 남편에 비해 부인의 신행생

활이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교가 있는 주부들의 가정 행복도(만족도)가 170점 만점에 132.9점으로 종교가 없는 주부들의 가정행복도 128.8점보다 높아 종교계의 눈길을 끈다.

어은주씨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종교가 건강한 가족을 구축하는 중

교가 가족의 건강성을 구축하는데에 기본이 된다는 주장과 갤럽(Gallup)이 종교유형과는 상관없이 신생활 그 자체가 가족관계를 강화시켜준다는 등의 주장도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말해준다.

어은주씨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종교가 건강한 가족을 구축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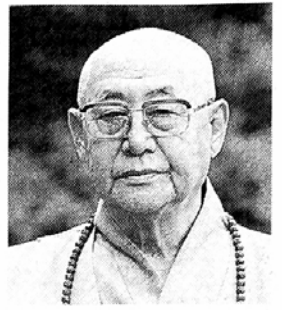
요한 요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하고 "가족간에 종교적, 신앙적 주제를 공유한다는 것은 기계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가족에게 공동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가족원



◇종교를 가진 주부가 더 행복하다. 종교가 있는 주부들의 가정행복도가 무종교 주부보다 높다는 조사결과를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고리"라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보우스님 연구법행로 탐사 다녀온 덕암스님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7백년전 태고 보우스님이 떠났던 중국 10만리 구법행로를 따라 탐사를 다녀온 덕암스님(전 태고종 종정, 순천 선암사방장)본지 9호 보도. 태고 보우스님의 출생지부터 열반지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지답사한 덕암스님은 오는 10월말 발간예정인 1천쪽 분량의 <태고보우스님 발자취 및 논총>을 필생의 역작으로 추진 중이다.

-먼저 태고 보우스님 중국구법행로 10만리길의 의미와 다녀오신 소감부터 들려주시지요.

▲ 태고 보우스님 구법행로와 항주 천호암 탐사 발원을 20년전부터 해왔습니다. 다녀보니 감회가 새롭고 태고 보우스님이 건지심을 찾아 걸었던 10만리 구도의 길이 눈에 어른거려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답사 전부터 태고 보우스님과 친공 석목화상이 문답했던 사찰

고자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 10만리길을 걸어 중국의 석목화상을 찾아 갑니다. 보우스님이 석목화상을 만나니 석목화상은 "많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지요"라는 말로 대대도 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석목화상과 문답했던 천호암터 찾았지요"

보우스님 한국서 견성후 중국행

로 전해지는 항주 천호암 사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둬 것으로 기대 있습니다.

▲ 중국 문화혁명 당시 폐사된 천호암을 찾아냈습니다. 중국 철강성 문화부에서 발해준 자료에서 '석목화상의 '석목'은 호수 옆의 연꽃밭이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는 구절에 기초하여 항주에서 서북쪽으로 60리정도 떨어진 주번일대 산맥을 중심으로 조사

에 나섰습니다. 하루산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산중턱의 연못과 그 옆의 거북바위를 상보 하보 마을에서 찾아낸 것이지요. 주변일대에 주춧돌 기와장 연꽃대 등 20여가지의 유물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번 답사는 태고 보우스님이 석목화상에게 법을 배워 인가를 받고 입제법맥을 이은 것으로 전해진 법맥 재조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 보우스님은 국내에서 견성하여 단지 자신이 이룬 도를 확인하

배워 법맥을 이은 것이 아니라 서로 견성한 법을 문답한 것이지요.

-태고 보우스님이 2년간 중국에서 주지를 지냈던 북경 영령사지와 대관사지는 어떠했는지요.

▲ 보우스님이 주지로 있었던 영령사에 3번 원나라 왕과 신하가 법회에 참석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북경이 아니라 당시 수도였던 대도를 중심으로 있었을 것이라는 답사단의 분석에 따라 제 2차 답사를 준비중입니다.

-스님께서 <태고 보우스님 법어 및 논총>을 발간하는 것은 태고 보우스님의 행장을 재검정하기 위함이라 보여집니다.

훈을 들여와 원문부를 설치했으며 통불교를 주창하고 선농일치에 입각한 사찰의 독자적 운영 등 그 업적이 큼니다. 보우스님 행장을 재검정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김원우 기자



◇덕암스님 등 대한불교문화연구원 답사단이 중국 허우산 천호암터에서 연못 등 유적을 확인하고 있다.

백양사 교구본사 첫 납골당 건립

450기 10월말 공사... 온습도 제어장치 등 시설 갖춰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지선)가 교구본사로는 처음으로 납골당을 건립한다. 백양사는 명부전을 해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45평의 납골당을 짓고 그 위에 명부전을 복원할 계획으로 오는 10월말(10월25일 방장 추대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계도 마비지 작업에 들어간 백양사는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 등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4백50기 영골을 안치할 수 있는 45평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백양사는 일본 장묘시설 기술을 도입, 냉 난방 및 온습도 제어장치, 냉세독소시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지선스님은 "매년 서울 여의도 크기만한 땅이 묘지로 변하고 있고, 납골당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포교의 일환으로 납골당 설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화장 등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찰 단위의 납골당 건립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불교가 장례문화를 주도할 때 포교 및 사찰의 사회공헌도 인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흥국씨 월드컵 홈페이지 개설

불자 가수 김흥국씨가 2002년 월드컵 축구 흥조를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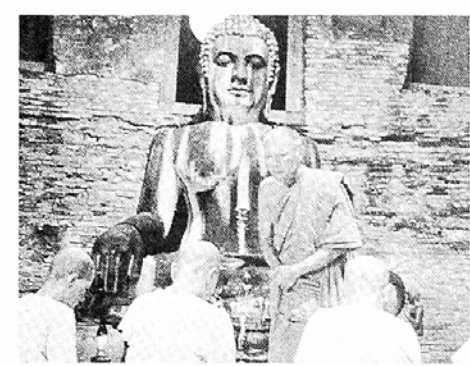
김씨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전문업체인 웹 인터넷서널(주)의 협조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

2002년 월드컵을 주제로 축구인들의 관심을 끌겠다 나열했다. 이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web.co.kr/worldcup/worldcup.html>이다.

'김광석 가요제' 추진

지난 1월 6일 돌연한 자살로 32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던 라이브 가수 김광석을 추모하는 '김광석 가요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광석씨의 아내 서혜순씨가 실종으로 있는 김광석 팬클럽 동근소리는 최근 김광석의 유작 라이브 앨범 (인생이야기)과 (노래이야기)가 출판된 것에 맞춰 라이브 음반 발매 기념제를 김광석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수안사에서 치르고 서울 대학로에 김광석의 추모비를 건립하는 한편 사후 2주기에 '제1회 김광석 가요제(가제)'를 개최, 신인 포크송가수들의 동용문으로 삼는 등 일련의 행사를 추진 중이다.



◇은가족이 함께 보는 추석 특집 가족 드라마 '벙클링의 까마귀'.

불교TV 한가위 프로 '풍성'

8월 한가위를 맞은 방송가가 풍성하다. 불교TV는 추석을 맞아 '퀴즈특급! 이뉘고? 왕중왕전'을 오는 25일 오전 11시 10분에 방송한다.

통해사 가톨릭가톨릭과 동방불교대학 지비전법원이 불꽃튀는 집전을 거쳐 우승한 팀에게는 동남아 4백50억 여행기도 수여된다.

태국 불교의 오늘을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 '황금빛 사원의 나라를 찾아'가 26일 오후 1시 30분에 방영되며, 27일 오전 10시 20분에

는 불자 탤런트 엄영란, 김효진, 마라톤 황영조 등이 출연하는 추석특집 '스타들의 산사체험'이 방송된다.

또한 추석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2부작 드라마 '벙클링의 까마귀'가 27일~28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불교방송은 오는 26일~29일 나흘동안 귀향길 교통현황과 추석이야기 등을 음악과 함께 전할 계획이다. (은)

지난 70, 80년대 그저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온나라가 매달렸던 우리가 문화진흥과 복지사업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생각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생활정도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이와 반비례로 공중도덕심 등 윤리는 형편없이 무너져 가고 금전만능과 물질주의가 그 어느것보다 대우받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은근과 끈기, 여유, 양도 등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배운 아름다운 태도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막 태 가는 사회분위기를 정화시

킬 수 있는 거름장치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체부가 추진하려 했던 '문화복지구상'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문화예술계의 크 나른 반발을 사고 있다는



이경숙 <취재2부 차장>

연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의 체육관련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고

정예산으로 배정될 것이라 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추진하려 했던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공공박물관 건립지원 △대중예술전 문공연장 확충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한국문화원 증설 △공공주비 연달해 기금지원 △문화의 거리

요원한 문화선진국

조성 등 10여건의 중요한 문화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 도대체 국민들로 하여금 뛰고 치고 달리는 운동경기만 보고 살리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이룬데 없다. 문

화는 당장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준다. 문화의 꽃을 피우는 일은 열심히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급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라는 것때문에 예산이 체육활동에 우선 배정되고 문화복지사업은 묵살되다니 이 정부가 문화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간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중단 예산도 금방 가시화되는 부문에 먼저 배정이 쏠리는 것은 아닐까 괜한 기우가 든다.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 1) 본회의 佛탑다라니에서,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힘(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 2) 이 힘(기)은 신심깊은 불자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여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佛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매(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힘(기)은 사람이든 조공비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순없이 저절로 악함이 없이 풀이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 3) 그리고 금강경 신밀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퍼져있는 힘(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지기가 원하는 간절히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언제 이루어 질것인지? ● 조상령의 영계가 친도여부있는지? ● 해고자 해임이 성사될것인지? ● 무수익을 허던 될것인지? ● 대학 입시 합격할것인지? ●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을것인지? ● 현재 읽고 있는 병환은 낫을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나 신밀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힘(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힘이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 어려운 것은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이 나오면 신중판구 (80-90%)는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힘이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힘을 받은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매 영의되고 관념작용을 일으켜 영계에 우연히 들끓고 있는 영이 없고 집안에 들과 영을 일으킵니다. 이때 佛탑다라니를 친되어 소망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인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친도되어 떠나고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풀리나옵니다.
- 5) 佛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열성적 하고 단순히 부처님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나타나지 않고 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 :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힘 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신을 없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방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망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실수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들에게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탑다라니 조상 경위와 사용방법들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어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급 백색광면 천 위에 100% 순수 잉크의 경연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x (세로) 160cm

■ 부간 경상남독도
■ 상담문의 : 대원불교 **보문포교원** (원장 강경)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3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 및
■ 책자신청 : ① 성지관음회 (회장 제환)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9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감·사·드·림·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이들에게 언제나 밝고 바르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하시던 한길로 대법사께서 1996년 8월 31일(음.7월 18일)에 입적하셨음을 알려드리며, 9월 2일 봉행된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 큰스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비후 수습된 사리 친견법회 및 49제 봉행을 알려드립니다.

49제 및 사리 친견법회

일시: 1996년 10월 18일(음.9.7)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면 송누리 봉인사 한길정진원
전화: (0346) 574-5585, 573-3096

出家子·적경(조계 총림 송광사) / 一子·한상린(도서출판 단이출판사), 상기(주동방아그로), 상만(한길 건설링 대표), 상경(주산파바다 대표) / 신도회장·이 보리심

봉인사 한길정진원